

텔레비전 드라마로 살아난 풍향계의 집

20 세기 초반 기타노이진칸 가이를 무대로 펼쳐지는 ‘가자미도리(풍향계)’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1970 년대 후반에 방송되면서 이 지역을 향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. ‘가자미도리’는 1909 년 무렵 지어진 탑 위에 설치된 독특한 풍향계 때문에 ‘풍향계의 집’이란 이름으로 친숙했던 옛 토마스 저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이야기는 다이쇼 시대(1912~1926)에서 시작하고, 고베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독일인과 결혼한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. 실제 토마스 저택과 토마스 가족이 이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지만 고베의 국제적인 지역의 삶을 신선하게 그려냈습니다.

뜨거운 인기의 드라마는 일본 방송국 NHK 가 제작, 1977 년 10 월부터 1978 년 4 월까지 매주 6 일, 매일 아침 15 분 길이의 에피소드를 150 회 이상 방송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즉시 대중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냈고, 사람들에게 고베 이진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더욱 알고 싶다, 이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. 관심과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, 고베시는 1979 년에 기타노초/야마모토도오리에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를 설치하고 이곳에 현존하던 역사적 건축물을 복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커다란 요인이 되었습니다.

의외의 경위를 거쳐 유년 시절 풍향계가 있는 집에 살았고,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엘제 카르보씨(결혼 전 토마스 성)는 이 드라마와 집에 관한 관심을 듣고 그 보존 노력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. 그녀는 1979 년에 고베를 방문하면서 원상태의 집과 관련된 많은 사진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. 이 자료는 복구를 감독하던 전문가들에게 있어 귀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. 드라마 ‘가자미도리’ 덕분에 풍향계는 고베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의 상징이 되었고 시의 표식부터 소화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.